

국제금융중심지 서울 - 여건과 과제



최생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rchoi@hanyang.ac.kr

위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지금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비약하고자 하는 서울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외국 금융인들은 서울을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에 미심쩍어 했다. 이는 객관적인 지수를 써서 국제금융중심지를 등급화하는 각종의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행되어 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가 탄탄한 회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사
-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 국제경영학회 회장 역임
- 미국 폴브라이트재단 강의 및 연구 교수
- 미국 미시간대학교, 펜실바니아대학교, 중국 북경대학 초빙교수
- 정부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자문위원회 등 위원 역임
- Banks and The World's Major Financial Centers(Review of World Economy, 2003, 공저) 등

복제를 보이면서 서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서울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제금융중심지라고 하는 현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제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이웃 국가의 중요한 경쟁도시들과의 상대적인 척도에 비춰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중 어떤 것들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여럿은 서울시가 아닌 한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들이다. 또 어떤 것들은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많은 것은 장기적으로도 성과를 얻어 내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국제금융중심지라는 척도에서 보면 서울은 아직도 먼 변방이다.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그 중심에 다가갈 수 있을지 아직은 아득하기만 하다. 1970년대까지도 한국은 자동차산업에 비교우위가 없다는 서구의 지적에 모멸을 느끼면서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던 옛일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오늘날 우리의 자동차산업이 가지는 국제적인 높은 위상처럼 서울의 국제금융 위상도 발전의 궤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한 정책적 의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노력해야만 힘들게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 금융위기와 아시아 금융의 부상

아직도 진행 중인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 경제를 운용해온 큰 틀(paradigm)이 많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과 경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미국의 일방주의와 그 과급에 의한 금융세계화 현상이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 차입금융이 주류를 이루는 금융발전에서 금융건전성이 중시되는 모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 등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이런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갖가지 교정 작업과 규제 개혁이 각국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 정부와 시장 간의 다툼에서 결국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신축성을 보장해주는 시장중심의 체제가 정부 중심의 체제보다 세계경제에 더 유익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금

융합동의 시장을 제공하는 국제금융중심지의 역할이 앞으로도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기도 하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세계금융위기의 결과로서 아시아경제가 세계경제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 유동성이 아시아 및 중동지역으로 크게 이동하여 아시아 중심의 신흥경제국이 세계무역의 방향과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다. 자본력이 풍부한 국가, 저축이 풍부한 국가, 석유수출국 등 신흥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어, 금융위기 이후 부와 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한국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MBI) 등에서 위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1990년대 금융 위기 이후, 세계 GDP에서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현재는 그 비중이(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고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 신용, 투자자본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자원이 대부분 역내의 금융중심지가 아닌 런던, 뉴욕 등 역외의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운용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물론 신뢰, 선진화, 상품개발 능력 등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역내 금융중심지들이 속히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2. 서울의 여건과 위상

국제금융계에서 아시아지역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를 추구하는 서울에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 국제금융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서울의 현재 위상은 매우 실망스러운 지경이다. 국제금융중심지의 순위를 매기는 런던의 시티(The City of London)가 국제금융기관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은 48위로 매김되어 두바이, 바레인, 카타르 등의 중동지역 중심지들보다도 더 하위에 처져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상하이로 국제금융중심지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중국 국무원이 이를 승인한 지난 수년간 모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울의 동북아금융중심지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

금융인들이 회의적이다. 그만큼 서울이 내세울 것이 적고 서울의 글로벌 이미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서울이 국제금융중심지 또는 지역금융중심지가 되려면 극복해야 할 난관이 그만큼 크고 힘든 도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들도 변화하고 있다. 도쿄는 일본 경제의 정체와 폐쇄성 때문에 급속히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반해, 싱가포르와 홍콩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기존의 중심지 이외에 최근 중국, 인도, 중동 등지에서 지역금융중심지가 부상하고 있다. 뭄바이의 등장, 두바이 등 중동 금융중심지의 적극적 개발에 더하여 상하이와 베이징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업고 부상하는 상하이는 서울에 큰 위협으로 느껴진다. 중국의 국내금융 부문이 현재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지만,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상하이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베이징 당국이 자본계정을 충분히 자유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상하이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처럼 서울이 경쟁력 있는 중심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은 아시아경제의 부상과 금융의 중요성 증대라고 하는 긍정적 여건과 함께, 지역 내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금융중심지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위협적 여건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시아 경제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비춰볼 때 특성화된 다수의 금융중심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서울에 위안이 되는 말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다가가 서울이 어떤 특성을 갖춰서 외국금융기관들에게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역시 쉽지 않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2003년 말 ‘동북아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8년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초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 의지를 밝혔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도 활발하지 못하고 금융 국제화와 증권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또한 크게 부족하다. 규제와 감독은 아직도 경직적이고,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지나칠 정도로 높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요원하다.

3. 서울의 국제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과제

최근 국제금융중심지의 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규제와 조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금융중심지를 만드는 일이나, 이들 간의 경쟁은 정치적인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1960년대 싱가포르를 정부가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워내던 때와는 달라서 규제완화나 조세체계의 조정이 외국금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도 일을 어렵게 만든다. 규제는 동시에 체계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 적정한 수준을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다.

서울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여러 규제(등록, 공시 요구 등)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면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통제할 수 있는 규제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외국의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고 이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부분과 지방정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제와 마찬가지로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다. 법인 소득세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부터는 20%가 되어, 일본 30%, 중국 25%, 싱가포르 18%, 홍콩 16.5%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다.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규제나 조세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자유, 윤리 수준 등도 영업환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항목들이라 하겠다. 그 외 국제금융중심지가 구비해야 할 다른 중요한 항목으로 인적자원, 시장 접근성, 하부구조, 생활여건 등이 일반적으로 꼽힌다.

서울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행동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들 다섯 가지 항목을 핵심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설정되어 있는 비전을 큰 틀로 하여, 이들 각각에 대해 단기, 장기로 향후 1년, 3년, 5년, 10년의 목표치를 결정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이 대부분 제도적인 문제 또는 우리 문화나 국가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어, 많은 시간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내야 한다. 상하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있음은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도와 인프라, 세제, 외환관리, 경제거시변수 안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금융통합 추진이라든지 국내 금융기관의 전문성 강화, 전문인력 육성, 업무 고급화, 해외 진출 등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과제를 함께 수행해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인도 등 주변 금융중심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 이웃 금융중심지들과 서울이 서로 제로섬이나 네가티브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수행할 필요가 있고 비교적 독자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과제가 금융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내는 일이다. 세계적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¹⁾에 의하면 응답한 금융기관의 거의 전부가 숙련된 전문인력이 국제 금융중심지의 매력도에 있어 ‘대단히 중요’ 또는 ‘결정적으로 중요’ 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금융인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상태이고, 그나마 우수한 인력들은 계속해서 외국계로 옮겨 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금융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을 중국보다도 더 낙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 부족은 사실 아시아국가들에 공통된 현상이다. 상하이도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제약으로 금융전문인력의 부족을 손꼽고 2020년까지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길러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이 금융전문가를 충분히 양성하면 이는 아시아지역의 금융중심지 간 경쟁에서 중요한 경쟁우위요인이 될 것이다 서울도 목표연도를 정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계량화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행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가 주력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이다.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소프트 파워’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화, 외

1) Corporation of London(2005)

국민에 대한 개방적 태도, 국가에 대한 친밀도와 호감도, 국가의 브랜드 가치, 문화와 아이디어, 가치 공유, 글로벌 에티켓, 국제교류 등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외국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생활환경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올림픽 이후 북경과 상하이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어 서울보다 못하지 않다.

서울은 모든 금융분야에서(full-fledged) 중심지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국제금융중심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인들을 구비함과 동시에 독특한 특성(niche)을 동시에 갖춰서 특성화된 지역금융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제는 주변의 금융중심지들과의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이 전문화할 수 있는 특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정부는 자산운용업을 한국의 정책적 육성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현재 이 분야의 선두 금융기관들을 보면 선진 각국에서 두루 활발한 영업거점을 가진 대형 은행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는 금융자원의 증대,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확충, 저축률 제고 등에 힘입어 축적된 자산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자원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 금융기관들에 의해 운용되었는 바 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익하고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운용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내 채권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해 있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 초 국채에 부과되는 세금을 철폐한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서울의 매력은 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상대국의 채권을 상호 구입해주는 방안이나 아시아 채권시장 안(ABMI)이나 아시아채권기금(ABF)의 설립 등은 지역 내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고 아시아 금융중심지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자산운용업에 특성화하려는 서울의 계획에 보탬이 될 것이다.

4. 요약

세계적 금융위기로 주요 선진국 경제와 국제금융중심지들이 대부분 타격을 입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장기적으로도 양호한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동력 역할을 수행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 입지를 굳힌 싱가포르와 홍콩에 더해 서울, 상하이, 뭍바이, 두바이 등이 활발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지역의 신흥 금융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지역금융중심지 간에는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서로 금융거래를 다투는 경쟁적 효과(trade diversion effect)도 있겠지만, 중심시장을 형성해서 새로운 금융거래를 창출해내는 긍정적 효과(trade creation effect)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제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서울이 해내야 할 과제는 무겁고 험난하다. 규제와 세금제도를 포함한 금융기관 영업환경의 개선,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자산운용업 등 시장의 확충, 인프라 구축, 외국인에 위한 거주환경의 개선 등이 중요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힘의 원천이 우수한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점에 비춰 볼 때 특히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중심지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건을 만들고 소프트 파워를 키워서 외국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서울이 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하겠다. **SDI**

참고문헌

- 최생림(2008), "국제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과제", 한국국제경영학회 특별세미나
- Chatham House(2008), The Gulf as a Global Financial Centre
- City of London(2008), The Future of Asian Financial Centre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City of London
- Corporation of London(2005), The Competitive Position of London as a Global Financial Centre
- McKinsey & Company(2007),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The terms of competition and prospects for the Asia-Pacific region, McKinsey & Company